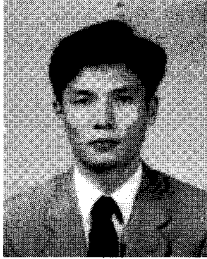




특집

유리용기업계



김정환

한국유리공업협회동조할 과장

우리나라에서 유리를 생산한지도 벌써 한세기를 향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유리공업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거듭해가고 있으며 해방 후 지난 50년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질적·양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하기에 이르렀다. 유리용기는 관련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유리용기를 대체할 새로운 용기의 개발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리용기 제조업의 과제와 전망을 조명해 본다. 유리병은 제품의 내용물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비롯하여 청결성, 화학적 내구성, 기밀성등의 우수한 특성을 갖

춘 포장용기로서 주류, 청량음료, 식음료품, 화장품, 의약품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각종 일회용 대체용기의 개발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손쉽게 쓰고 버릴수 있는 일회용 용기의 급격한 증가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유리병업체의 제조기술은 자체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세계수준의 품질을 갖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유리병은 타용기에 비해 중량에 대한 단점이 있어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량화된 병이 현재 생산·시판중에 있다.

한편 유리병은 유일하게 반복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용기로서, 대부분의 포장용기가 일회용 용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된 국토의 단순 매립을 줄이며 자원의 재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포장용기라 하겠다. 또한 파손된 유리병도 수집만 된다면 유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량 유리병의 사용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어 한번 생산된 유리병은 거의 영구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리병은 국제적으로 환경보존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국내의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리용기가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로서의 우수한 특성과 재활용 용기로서의 친환경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 유리용기 제조업체가 공존·공생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대체용기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유리용기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노력할 때 유리용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